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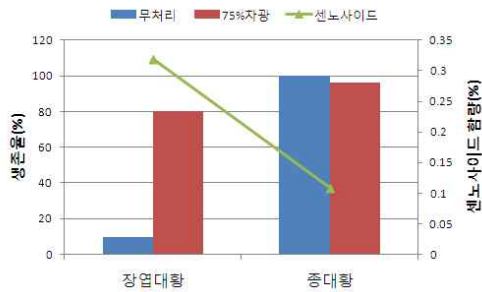
장엽대황의 국내 채종적지 및 시기설정

□ 연구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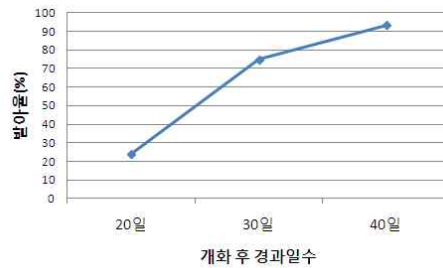
- 대황은 중국원산의 식물로 수입 의존, 소염성 하제로 사용하는 약재임.
- 약재사용이 가능한 대황은 센노사이드 함량이 0.25% 이상이어야 함.
 - 국내 재배 생산되는 대황은 종대황으로 약전규격에 부적합.
- 고급약재의 국내생산이 없어 재배 생산적지 탐색, 종자생산과 보관, 종묘 생산 기술 등이 필요함.

□ 주요 연구성과

- 장엽대황은 표고 700m 이상의 일조량이 적은 곳에서 생육 및 채종 가능
- 개화 후 40일 경과 후 채종 ⇒ 발아율 90% 이상



【재배조건에 따른 생존율】



【채종시기에 따른 발아율】

□ 파급효과

- 저급 대황의 약재유통을 줄이고 신뢰성 있는 약재수급 가능

□ 유사영농활용과의 차이점

- 대황 채종 생산에 관한 선행 자료 없음

<세부연구결과성적>

○ 3년생 대황 수량 및 지표성분

식물명	근장(cm)	건근수량(kg/10a)	센노사이드A (%)
장엽대황	36	867	0.32
중대황	38	614	0.11

○ 지역별 생육특성

지역	식물명	발아율(%)	활착율(%)	초장(cm)	엽수(개/주)
철 원 (200m)	장엽대황	90	10	32	3
	중대황	91	82	52	5
정선 (400m)	장엽대황	92	5	49	4
	중대황	92	86	58	5
태백 (700m)	장엽대황	90	85	28	3
	중대황	91	87	43	4

○ 장엽대황의 개화 후 수확시기에 따른 종자특성

개화기(월.일)	채종시기	천립중(g)	발아율(%)
5. 18	20일	12.06	24.2
	30일	12.45	75.0
	40일	11.22	93.3

○ 채종 후 저장기간별 발아율

구 분	1,000립중 (g)	채종 후 발아율(%) 15℃보관				
		채종시	1개월	3개월	7개월	12개월
장엽대황	10.61	70.2	86.2	98.4	83.2	73.2
중대황	14.86	71.3	87.6	98.3	84.3	74.5

인삼약초연구소

담당자 : 허수정, 조운상, 정햇님, 안문섭
(033)450-8912, hsujeong@korea.kr